

# 치과위생사의 노인구강관리 전문가 교육경험에 따른 노인을 대하는 융합적 태도 관계

이정화<sup>1</sup>, 이유희<sup>2</sup>, 윤정원<sup>3</sup>, 장경애<sup>4\*</sup>

<sup>1</sup>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sup>2</sup>마산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sup>3</sup>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강사 <sup>4</sup>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The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elderly oral health care education by specialist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ung-Hwa Lee<sup>1</sup>, Yu-Hee Lee<sup>2</sup>, Jung-Won Yun<sup>3</sup>, Kyeong-Ae Jang<sup>4\*</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Eui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Masan University

<sup>3</sup>Instruct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Eui University

<sup>4</sup>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illa University

요 약 노인구강관리 전문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노인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파악하고자 치과병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26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win 25.0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에서 검증하였다. 노인 구강보건지도 교육( $p < 0.05$ ), 노인의 구강조직 재생 교육( $p < 0.01$ ), 노인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 $p < 0.01$ )을 받은 유경험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는 무경험자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노인구강전문가 교육경험 유무와 노인을 대하는 태도의 상관관계는 노인 구강보건지도 교육경험은 노인을 대하는 태도( $r = 0.160, p < 0.01$ ), 노인 구강조직 재생 교육경험은 노인을 대하는 태도( $r = 0.178, p < 0.01$ ),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경험은 노인을 대하는 태도( $r = 0.173, p < 0.01$ )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노인구강관리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및 노인전문가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교육에서도 노인치위생학 관련 교과목이 개설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노인, 구강보건지도, 구강조직 재생, 섭식 연하 기능 훈련, 노인의 태도, 융합

Abstract Dental hygienists have received specialist training and experience to identify relationships that affect the attitude towards the elderly dental hospitals, general hospitals, working in a university hospital were survey of 264 peop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 oral health specialist education experience and th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was influenced by th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 $r = 0.160, p < 0.01$ ), the experience of the elderly oral tissue regeneration education was related to th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 $r = 0.178, p < 0.01$ ), and feeding and swallowing function training educ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 $r = 0.173, p < 0.01$ ).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curriculum in the maintenance training course for the dental hygienists who are experts in oral health care for the elderly, and to develop the curriculum for elderly dental hygiene course in the school education.

Key Words : Elderly, Oral health guidance, Oral tissue regeneration, Eating and swallowing function training, Elderly attitudes,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Kyeong-Ae Jang(jka@silla.ac.kr)

Received August 7, 2019

Accepted October 20, 2019

Revised September 11, 2019

Published October 28, 2019

## 1. 서론

오늘날 치과의료환경은 여러 가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화두는 고령화이다.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인구의 7% 이상이 노년층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하였고, 2019년 현재 고령화 비율이 14.9%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65년에는 42.5%로 세계 1위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1,2].

노인은 신체 전반에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생체기능 저하와 일상생활활동 등에 많은 제한이 따르며, 만성 퇴행성 질환의 이환율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높아지게 된다[3].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알츠하이머나 치매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노인의 구강건강 문제는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 저작 및 연하곤란 등으로 인한 식사의 양과 질을 저하시켜 영양결핍과 체중저하 등을 야기해 전신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4-8].

구강은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9], 구강건강의 문제는 음식물을 제한적으로 섭취하게 되므로 양질의 식사가 어려울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영양결핍, 체중저하 등은 전신건강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10]. 그러나 구강건강은 여러 가지 국가정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전히 전신건강과는 무관하게 인지하고 노인 구강보건사업에서 예방과 관리부분은 소홀한 상태이다.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구강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재가 급여의 구강위생서비스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방문간호 구강위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는 전국에서 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11]. 이에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구강관리 전문가 양성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노인의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노인치위생학 관련 교과목 운영개설을 학교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치과위생사가 노인구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의 의료서비스가 질병을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었다면, 4차 산업혁명이후의 의료서비스는 질병 발생을 예방하여 관리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보건 사업과 관련된 많은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보건의료계의 보건학적, 사회적, 환경적 변

화로 미래시대를 위한 준비와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노인구강관리 전문가 교육을 받은 경험에 따른 노인을 대하는 태도와 의 관계를 파악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른 치위생(학)과 교육의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방법 및 통계

### 2.1 연구조사 대상

본 연구는 201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치과병·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임의 표본 추출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한 분에 한하여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 2.2 연구조사 방법

노인구강관리 전문가 교육경험 연구 도구는 총 3문항으로 구강보건지도, 노인의 구강조직 재생, 노인 섭취 연하 기능 훈련 교육경험 유무로 구성되었다. 노인의 태도 척도는 차[13]의 연구에서 제시한 설문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총 30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성격의 특성 8문항, 정서적 특성 5문항, 심리적 특성 2문항, 판단 사고능력 4문항, 신체적 특성 5문항, 가족관계 특성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점수를 산출하였고, 부정적인 설문도구는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ver 24.0(IBM corp., Armonk, NY, USA)으로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05에서 검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 통계분석으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노인 구강건강관리 교육을 받은 경험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각 하위요인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프로그램 3.1을 이용하였다. 유의수준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의 조건하에 232명의 최소 표본 크기로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80명으로 선정하였고, 그 중 자료처리가 곤란한 설문지는 제외하여 26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노인의 태도 하위요인별 Cronbach's  $\alpha$ 는 성격의 특성 0.857, 정서적 특성 0.723, 심리적 특성 0.852, 판단사고능력 0.724, 신체적 특성 0.656, 가족관계 특성 0.678, 자기관리능력 0.637로 신뢰도 계수 0.6 이상은 설문 도구의 내적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6.1%, 여자가 93.9%로 나타났고, 연령의 분포는 23~29세가 53.8%, 30~39세 31.4%, 40세 이상 14.8%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 졸업 49.6%, 대학교 졸업 30.3%, 대학원 이상 20.1%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은 11년 이상 30.3%, 3~5년 25.0%, 2년 이하는 23.9%, 6~10년 20.8%로 나타났다. 근무기관의 형태는 치과의원 61.0%, 치과병원 21.6%, 종합병원 13.6%, 보건소 1.5%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Group	N	%
Sex	Male	16	6.1
	Female	248	93.9
Age	23~29	142	53.8
	30~39	83	31.4
	Over 40	39	14.8
Education	College	131	49.6
	University	80	30.3
	More than post	53	20.1
Career	Under 2year	63	23.9
	3~5year	66	25.0
	6~10year	55	20.8
	Over 11year	80	30.3
Kind of work	Dental Clinic	161	61.0
	Dental Hospital	57	21.6
	General Hospital	36	13.6
	Health Center	4	1.5
	Etc.	6	2.3
Total		264	100.0

#### 3.2 노인 구강보건지도 교육을 받은 경험에 따른 노인을 대하는 태도

연구대상자의 노인 구강보건지도 교육을 받은 경험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노인 구강보건지도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는 3.04점, 무경험자 2.9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5$ ). 하위요인 중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노인 구강보건지도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3.39점, 무경험자 2.9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 가족관계 특성은 노인 구강보건지도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2.97점, 무경험자 2.69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5$ ). 판단사고능력은 노인 구강보건지도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3.29점, 무경험자 3.09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 성격의 특성은 노인 구강보건지도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2.70점, 무경험자 2.56점으로 나타났다. 신체의 특성은 노인 구강보건지도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2.50점, 무경험자 2.41점으로 나타났다. 자기 관리능력은 노인 구강보건지도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3.54점, 무경험자 3.61점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특성은 노인 구강보건지도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와 무경험자는 각각 1.50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elderly oral health guidance education

Variables	Oral health guidance education experience		P
	Yes N=199	No N=65	
Attitude of the elderly			
Character of personality	2.70±0.66	2.56±0.72	0.153
Emotional characteristics	1.50±0.21	1.50±0.16	0.995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3.39±0.88	2.95±0.87	0.001
Judgment ability	3.29±0.61	3.09±0.74	0.035
Physical characteristics	2.50±0.72	2.41±0.56	0.315
Family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2.97±0.81	2.69±0.83	0.017
Self-management ability	3.54±0.78	3.61±0.69	0.520
Total	3.04±0.35	2.90±0.40	0.016

\*\*\* $p<0.001$ , \*\* $p<0.01$ , \* $p<0.05$

#### 3.3 노인의 구강조직 재생 교육을 받은 경험에 따른 노인을 대하는 태도

연구대상자의 노인 구강조직 재생 교육을 받은 경험에 따른 노인을 대하는 태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노인의 구강조직 재생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는 3.12점, 무경험자 2.97점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p<0.01$ ). 하위요인 중 노인의 성격 특성과 가족관계 특성은 노인 구강조직 재생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각각 2.95점, 3.25점, 무경험자 각각 2.56점, 2.77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01$ ). 자기관리능력은 노인 구강조직 재생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3.65점, 무경험자 2.3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 신체적 특성은 노인 구강조직 재생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2.69점, 무경험자 2.4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 판단사고능력은 노인 구강조직 재생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3.40점, 무경험자 3.1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5$ ). 심리적 특성은 노인 구강조직 재생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3.47점, 무경험자 3.2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

Table 3.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experiences of the elderly oral tissue regeneration education

Variables	Oral tissue regeneration education experience		P
	Yes N=72	No N=192	
Attitude of the elderly			
Character of personality	2.95±0.65	2.56±0.65	<.001
Emotional characteristics	1.52±0.19	1.50±0.20	0.473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3.47±0.75	3.21±0.93	0.037
Judgment ability	3.40±0.56	3.18±0.67	0.013
Physical characteristics	2.69±0.69	2.40±0.66	0.002
Family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3.25±0.72	2.77±0.82	<0.001
Self-management ability	3.65±0.82	3.31±0.71	0.001
Total	3.12±0.33	2.97±0.37	0.004

\*\*\* $p<0.001$ , \*\* $p<0.01$ , \* $p<0.05$

### 3.4 노인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대상자의 노인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 따른 노인을 대하는 태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노인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는 3.09점, 무경험자 2.96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 하위요인 중 성격의 특성은 노인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2.86점, 무경험자 2.56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 판단사고능력은 노인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

육을 받은 유경험자 3.42점, 무경험자 3.13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 가족관계의 특성은 노인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3.11점, 무경험자 2.7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 자기관리능력은 노인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3.11점, 무경험자 2.7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 심리적 특성은 노인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3.45점, 무경험자 3.1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5$ ). 정서적 특성은 노인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1.53점, 무경험자 1.4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5$ ).

Table 4.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training in elderly eating and swallowing function training

Variables	Eating and swallowing function training education experience		P
	Yes N=96	No N=168	
Attitude of the elderly			
Character of personality	2.86±0.63	2.56±0.67	<0.001
Emotional characteristics	1.53±0.18	1.48±0.20	0.046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3.45±0.79	3.18±0.93	0.017
Judgment ability	3.42±0.58	3.13±0.66	0.001
Physical characteristics	2.61±0.66	2.40±0.68	0.017
Family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3.11±0.73	2.78±0.85	0.002
Self-management ability	3.65±0.76	3.39±0.73	0.007
Total	3.09±0.31	2.96±0.39	0.003

\*\*\* $p<0.001$ , \*\* $p<0.01$ , \* $p<0.05$

### 3.5 노인구강관리 전문가 교육경험 유무와 노인을 대하는 태도 관련성

노인구강관리 전문가 교육경험 유무와 노인을 대하는 태도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구강보건지도 교육경험은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경험( $r=0.395$ ,  $p<0.01$ ), 노인 구강조직의 재생 교육경험( $r=0.310$ ,  $p<0.01$ ), 노인을 대하는 태도( $r=0.160$ ,  $p<0.01$ ) 순으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노인 구강조직의 재생 교육경험은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경험( $r=0.651$ ,  $p<0.01$ )은 노인을 대하는 태도( $r=0.178$ ,  $p<0.01$ )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경험은 노인을 대하는 태도( $r=0.173$ ,  $p<0.01$ )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Variable	1	2	3	4
1	-			
2	.310**	-		
3	.395**	.651**	-	
4	.160**	.178**	.173**	-

1: Oral health guidance education experience, 2: Oral tissue regeneration educational experience, 3: Eating swallowing training and education experience, 4: Attitude of the elderly  
The data were analys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p < 0.01$ .

#### 4. 고찰 및 제언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항목으로 2008년부터 구강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보건정책 및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의 방향 전환에 대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커뮤니티 케어에 대비하여 치과위생사의 노인구강건강 관리 전문가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에 따른 노인을 대하는 태도와 의 관계를 파악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른 치위생(학)과 교육의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노인 구강보건지도 교육을 받은 경험에 따른 노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노인 구강보건지도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 $p < 0.05$ ), 하위요인 중 노인의 심리적 특성( $p < 0.01$ ), 가족관계 특성( $p < 0.05$ ), 판단사고능력(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박[15]의 연구결과에 비해 낮은 정답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15]의 연구에서 심리적, 신체적 영역에서 매우 높은 정답율을 보여 본 연구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사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노인간호학을 독립적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여겨지며, 치위생(학)과 교과목에서 노인치과학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노인을 이해하고, 노인의 특성 및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서 노인치과학 관련 교과목을 개설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노인 구강조직 재생 교육을 받은 경험에

따른 노인을 대하는 태도 결과에서는 노인의 구강조직 재생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가 노인에 대한 태도( $p < 0.01$ ), 하위요인 중 노인의 성격 특성과 가족관계 특성에서 노인 구강조직 재생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p < 0.001$ ), 자기관리능력은 노인 구강조직 재생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p < 0.01$ ), 신체적 특성은 노인 구강조직 재생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p < 0.01$ ), 판단사고능력은 노인 구강조직 재생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p < 0.05$ ), 심리적 특성은 노인 구강조직 재생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p < 0.01$ )가 무경험자에 비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노인관련 지식 습득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여겨지며, 노인치위생학 관련 교과목이 전국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 개설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관련 실습교과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노인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 따른 노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노인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p < 0.01$ ), 하위요인 중 성격의 특성은 노인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p < 0.01$ ), 판단사고능력은 노인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p < 0.01$ ), 가족관계의 특성은 노인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p < 0.01$ ), 자기관리능력은 노인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p < 0.01$ ), 심리적 특성은 노인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p < 0.05$ ), 정서적 특성은 노인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p < 0.05$ )가 무경험자에 비해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신 등[8]의 연구결과에서 저작능력이 좋은 노인들에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한 바, 이처럼 노인의 저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빠르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노인 구강 전문가 교육경험 유무와 노인을 대하는 태도 상관관계에서는 구강보건지도 교육경험은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경험( $r = 0.395$ ,  $p < 0.01$ ), 노인 구강조직의 재생 교육경험( $r = 0.310$ ,  $p < 0.01$ ), 노인을 대하는 태도( $r = 0.160$ ,  $p < 0.01$ )순으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노인 구강조직의 재생 교육경험은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경험( $r = 0.651$ ,  $p < 0.01$ )은 노인을 대하는 태도( $r = 0.178$ ,  $p < 0.01$ )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섭식 기능 연하 훈련 교육경험은 노인을 대하는 태도( $r = 0.173$ ,  $p < 0.01$ )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실습경험이 노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심[16] 등과 전[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노인 교육경험이 많을수록 노인 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서와 김[18], 노인복지 강의를 수강한 이후에 노인 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결과로 나타난 이와 이[19]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노인 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전문 인력인 치위생(학)과 학생 및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노인전문치과위생사 프로그램 개발 및 세미나, 학술대회, 보수교육 등 노인치위생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즉 건강과 구강건강은 삶의 질과 관련성이 있다는 보고 연구 [20-26]가 있어 노인의 구강건강관리를 통해 노인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를 줄이고, 건강한 삶의 질을 높여 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노인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인 치과 위생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및 노인구강전문가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교육에서도 노인치위생학 관련 교과목이 개설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노인구강관리 전문가 교육을 받은 경험에 따른 노인을 대하는 태도와 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치과병·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6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구강보건지도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의 노인 에 대한 태도 점수는 3.04점으로 무경험자 2.90점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5$ ).
2. 노인의 구강조직 재생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의 노인 에 대한 태도 점수는 3.12점으로 무경험자 2.97점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
3. 노인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을 받은 유경험자의 노인 에 대한 태도 점수는 3.09점으로 무경험자 2.96점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p<0.01$ ).
4. 노인구강관리 전문가 교육경험 유무와 노인을 대하는 태도의 상관분석 결과 노인 구강보건지도 교육 경험은 노인을 대하는 태도( $r=0.160, p<0.01$ ), 노인 구강조직 재생 교육경험은 노인을 대하는 태도

( $r=0.178, p<0.01$ ),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경험은 노인을 대하는 태도( $r=0.173, p<0.01$ )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 REFERENCES

- [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9). *Population and Prospects of the World and Korea in 2019*. Statistics Korea [Online]. <http://kostat.go.kr/>.
- [2]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6). *Future Population Estimation: 2015-2065 years*. Statistics Korea. Statistics Korea [Online]. <http://kostat.go.kr/>
- [3] K. J. Min & J. S. Hwang. (2007).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Daily Activities on the Quality of Life for the Aged.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6, 223-248.
- [4] D. C. Lee, H. L. Lee, I. Suh & D. K. Kim. (1997). Factors Affecting on the Compliance of the Health Screening Program: A study of the Insured on a District Medical Insurance Associa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18(7), 739-751.
- [5] M. J. Cho, J. S. Shim, H. C. Kim, K. B. Song & Y. H. Choi. (2006). Relationship between Metabolic Syndrome Components and Periodontal Health Determined Us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Journal of Korean Academy Oral Health*, 40(4), 231-237.
- [6] H. K. Lee, K. B. Song, S. K. Lee, J. H. Park & Y. H. Choi. (2008). Association between Tooth Loss and Cardiovascular Risk Indicators in the Korean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ral Health*, 32(4), 495-503.
- [7] P. E. Petersen. (2003). The World Oral Health Report 2003: Continuous Improvement of Oral Health in the 21st Century—the Approach of the WHO Global Oral Health Programme.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31(1), 3-23.
- [8] H. E. Shin, I. C. Chang, J. C. Min, K. B. Song & Y. H. Choi. (2018). Association between Masticatory Ability,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Cognitive Function in the Elderly Population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ral Health*, 42(4), 159-166. DOI: 10.11149/jkaoh.2018.42.4.159
- [9] I. K. Hur, T. Y. Lee, J. K. Dong & S. H. Hong. (2010). The Effects of Dental Prostheses to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Prosthodont*, 48(2), 101-110. DOI: 10.4047/jkap.2010.48.2.101
- [10] M. J. Cho, J. S. Shim, H. C. Kim, K. B. Song & Y. H. Choi. (2016). Relationship between Metabolic Syndrome Components and Periodontal Health Determined Us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Journal of Korean Academy Oral Health*, 40(4), 231-237.
- [11] H. N. Kim, G. Y. Kim, H. J. Noh & N. H. Kim. (2018).

- In-depth interview with the center managers for home visit dental hygiene service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Journal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18(4), 455-62.
- [12] S. J. Kim, Y. S Kim, J. H. Kim, J. H Lee & K. E. Chang.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for Workers in Health and Medical Industry in Preparation for the forth. *Industrial Evolution*, 9(5), 43-52.
- [13] E. J. Cha. (2017). *A Study about impact on the elderly remarriage awareness by Daegu & Gyeongbuk University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buk
- [14] S. S. Lee. (2009). Factors Affecting the Knowledge and Attitude of Dental Hygienist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Acad Dental Hygiene*, 11(2), 223-235.
- [15] S. Y. Park. (2006). *General Hospital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Old Adult and Geriatric Nursing Education Need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16] S. H. Sim & J. S. Kim. (2010). A Study on Knowledge of and Attitude to the Elderly among Some Dental Hygienist.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0(2), 71-77.
- [17] B. H. Jun & Y. S. Choi. (2015). Influence of Elderly-Related Experience on Attitude toward Elderly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15(6), 1019-1026.
- [18] B. S. Seo & S. H. Kim. (1999). A Study on the Elderly Imag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Gerontol Society*, 19(2), 97-111.
- [19] J. M. Lee & S. Y. Lee. (2005). The Impact of Gerontolog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mong the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Welfare Aged*, 29, 259-283.
- [20] H. H. Park & I. J. Song. (2018). A Convergence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Chronic Neck Pai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6), 299-310.  
DOI: 10.15207/JKCS.2018.9.6.299.
- [21] H. S. Kim. (2017). Effect of Pain, Nutritional Risk, Loneliness, Perceived Health Status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7), 207-218.  
DOI: 10.15207/JKCS.2017.8.7.207.
- [22] H. Y. Song & M. H. Park. (2017). Comparable Influencing Factors for Quality of Health-Life in Osteoarthritis Patients in Urban and Rural Area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6), 311-323.  
DOI: 10.15207/JKCS.2017.8.6.311.
- [23] K. O. Cho. (2014). The Positive Effect of Physical Activity on Health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Elderly Korean People—Evidence from the Fif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J Lifestyle Med*, 4(2), 86-94.  
DOI : 10.15280/jlm.2014.4.2.86.
- [24] S. H. Lee. (2013). Gender Difference in Influencing Factors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in Commun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12), 523-535.  
DOI : 10.14400/JDPM.2013.11.12.523.
- [25] J. Kim, Y. Choi, S. Park, K. H. Cho, Y. J. Ju & E. C. Park.(2016). The impact of living arrangements on quality of life among Korean elderly: findings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2006-2012). *Quality of Life Research*, 26(5), 1303-1314.  
DOI: 10.1007/s11136-016-1448-6.
- [26] S. J. Ban, H. J. Lim, Y. J. Cho & J. K. Lee. (2015). The impact of the level of education as a result of educational investment on a quality of life - mediating effects of an employment, a health, and a social relation.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24(2), 111-131.

이 정 화(Jung-Hwa Lee) [장학원]



- 2008년 2월 : 인제대학교 대학원 예방의학과 (의학박사)
- 2005년 3월 ~ 2012년 8월 : 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 2012년 9월 ~ 현재 : 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구강보건교육학, 예방치학
- E-Mail : yamako93@deu.ac.kr

이 유 희(Yu-Hee Lee) [장학원]



- 2018년 2월 :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18년 3월 ~ 2019년 2월 : 대구과학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마산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융합 연구, 구강건강
- E-Mail : eu1983@naver.com

윤 정 원(Jung-Won Yun) [장학원]



- 2015년 2월 : 동의대학교 치위생학 전공 (치위생학석사)
- 2019년 8월 : 동의대학교 치위생학 전공 (치위생학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부산여자대학교, 마산대학교 겸임교수
- 2019년 9월 ~ 현재 : 동의대학교 강사
- 관심분야 : 치위생학, 구강건강
- E-Mail : luvdonkey@naver.com

장 경 애(Kyeung-Ae Jang)

중산학원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 (보건학석사)
- 2011년 2월 : 고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 (보건학박사)
- 2011년 3월 ~ 2012년 2월 : 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전임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신라대학교 치

위생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공중구강보건학, 구강보건교육학
- E-Mail : jka@silla.ac.kr